



프리미엄 생리대 '신사임당' 라츠알엔피

키토산으로 세균 99.9% 잡은 기능성 생리대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족에게 가장 많이 보낸 물건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최근 서울 김동 라츠알엔피 사무실에서 만난 '기러기 아빠' 강동걸 라츠알엔피 대표가 기자에게 대뜸 던진 질문이다. “리면, 한국 과자, 옷이요? 아니요. 한국산 생리대입니다.” 말레이시아산 생리대는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겨 가족들이 애를 먹었다고 했다. 어느 때처럼 생리대 소포를 챙기던 강 대표는 “직접 프리미엄 생리대를 만들어 중국,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필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면서 ‘직접 제조한 물건을 팔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들던 차였다. 그렇게 개발한 고품질 항균·탈취 효과가 뛰어난 ‘신사임당 생리대’다.

◆“99% 항균·탈취 효과”

신사임당 생리대의 항균·탈취 기능에 대한 비결은 ‘키토산’에 있다. 항균 효과가 뛰어난 키토산과 페퍼민트 추출물을 혼합해 생리대 겉면에 뿌리고 원적외선으로 건조시켰다. 강 대표는 “대기업과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선 기능성 생리대를 제조해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키토산을 주원료로 발굴하고, 적합한 혼합 비율을 찾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항균·탈취 효과는 국가인증검사기관 FITI 인증을 받았다. 강 대표는 “생리대에 세균을 주입한 뒤 18시간 후 검사한 결과 99.9%가 멸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밀폐된 박스 안에 암모니아



강동걸 라츠알엔피 대표가 생리대 '신사임당'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항균·탈취 기능 국가 인증받아
순면 100%로 가려움증 완화

백화점·면세점 등서 입소문 타
생리대 파동 때 매출 급증

기능성 기저귀 개발해 출시할 것

와 아세트산을 뿌린 생리대를 넣고 2시간 뒤 탈취율을 검사한 결과 약취가 99%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순면 느낌의 부직포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은 100%순면을 적용해 일반 생리대를 착용할 때 느끼는 가려움증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저가 제품 개발 - 동남아·중시장 공략”
강 대표가 상품 개발을 완료한 건 2016년 10월. 중국 수출을 시도하려고 하던 차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

라츠알엔피	
설립	2009년 4월
위치	서울 강동구 길동
주요제품	프리미엄 생리대 '신사임당'
특징	99% 항균·탈취 효과

태가 터졌다. 강 대표는 “급하게 판로를 국내로 전환해야 했다”며 “다행히 시중에 항균·탈취 인증 제품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격은 일반 순면 생리대보다 10~20%가량 비쌌지만 고급 생리대라는 입소문 덕에 백화점이나 면세점 위주로 꾸준히 판매됐다. 지난해 2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 대표는 “안전성 등으로 국내에서 한때 문제가 됐던 접착제 역시 독일 헬켈사의 무독성 접착제를 썼다”며 “덕분에 2017년 생리대 유해성분 파동이 일어났을 때 매출이 70배씩 뛰었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도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 베트남의 한 유통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 동남아나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부직포를 사용한 저가용 제품도 기획 중이다. 강 대표는 “키토산 항균·탈취 기능을 이용한 기저귀도 개발하고 있다”며 “생리대 전문 중소기업으로 통틀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철근 하나하나 영상으로 확인하죠” 부실공사 막는 스마트폰 앱 개발

씨엠엑스 이기상 대표



건설 현장에서 설계도면에 맞춰 건물을 짓고 이를 감독하는 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2015년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재판에서 불을 낸 사람(금고 1년6월)보다 건축사가 더 큰 법정형(징역 4년)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선고에서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고 감리까지 부실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건축사 출신인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사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 현장도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야기엔과 빌드업 등의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야기엔은 2016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폰용 공사감리 앱(응용 프로그램)이다. 공사감리자는 건설 기간 현장에서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지는지 검사한다. 이 대표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감리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며 “설계도면에 맞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씨엠엑스는 지난해 12월 시공자용 맞춤형 서비스인 빌드업도 출시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공사관리 협업 앱”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

용하는 일지와 각종 서류, 사진 등을 모두 서버에 올릴 수 있다. 건설 과정과 검사 과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한다. 건설 과정에 하자가 발생하면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스마트 건축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필로티 건축물(건물 1층을 개방형 주차장 등으로 활용)과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둥과 보 등의 철근 배치를 할 때 시공 현황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필로티 건물 40여동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면서 부실 사공 논란이 있었다.

이 대표는 “야기엔과 빌드업을 국내 건설 현장에 보급한 뒤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美 인조대리석 시장 공략 속도내는 현대L&C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참가



종합 건축자재 기업인 현대L&C가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KBIS)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L&C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 2019'에 참가해 신제품 10종을 전시했다. KBIS는 세계 6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다. 현대L&C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참가했다. 현대L&C는 이번 전시회에서 순도 99% 석영을 사용한 엔지니어드 스톤(프리미엄 인조대리석) 칸스톤 신제품 '아우라' '에덴' 등과 MMA(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인조대리석 하네스 신제품 '오이스터 팻' 등 총 10종을 선보였다. 칸스톤의 프리미엄 라인인 '언어스드(unearthed) 컬렉션'은 천연대리석과 육안으로 차이가 없는 자연스러운 패턴을 표현해 현지 건축 및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제품은 천연대리석과 비슷한 패턴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표현한 질감이 특징이다. 이들 제품은 캐나다 칸스톤 공장 제2 생산라인

유정석 현대L&C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미국 현지 바이어들에게 제품 설명을 하고 있다.

에 도입된 이탈리아 석재 가공 설비업체 브레튼사의 로봇 설비를 활용해 정교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현대L&C는 글로벌 인테리어 스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칸스톤-하네스 생산 규모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이달부터 미국 건자재 업체 월슨아트와 합작해 설립한 텍사스 하네스 공장이 본격 가동한다. 연간 하네스 생산량은 기존 세종 하네스 공장에서 생산하던 규모보다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L&C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칸스톤과 하네스 제품을 상반기 중 미국 현지 1000여개 업체에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뉴오리진 매장에서 사라질 뻔한 ‘전기식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뉴스카페

“날개판매 안돼” “법적문제 없어”
담당 공무원 따라 판단 오락가락
영등포구청, 3개월 만에 재개 허용

유한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고무줄 규제’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자체 담당자가 바뀌면서 법령 적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건강기능식품 홍보·판매 매장 ‘뉴오리진’에서 식음료를 주문하면 건강기능식품을 덤으로 주는 서비스를 작년 말 중

단했다. 뉴오리진은 빵, 샐러드, 차 등 식음료를 주문한 소비자에게 알약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씩 줬다. 소비자는 매장에 비치된 막자로 빵아 음식에 뿌려 먹었다. 유한양행은 소비자 가 건강기능식품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유도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청의 시장명령 때문이었다. 이 서비스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이 시행규칙은 오염 방지와 기능성 유지 등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날알 등)로 작게 나눠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유한양행은

전국 8개 뉴오리진 매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 1월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새 담당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 “해당 서비스가 관련 법령이 금지한 소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는 뉴오리진이 건강기능식품 날알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시식용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해당 서비스가 규정 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구청은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뉴오리진은 이르면 다음달 관련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식약처, 희귀질환자 대상 해의 임상약 사용 허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병 환자 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의약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2002년 임상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도입해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어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 한해 국내에서 사람 대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는 총 227건이다.

식약처는 다국적 제약사 등이 해외에서 임상 중인 의약품도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약사법 또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인류 운명을 구할 가장 강력한 무기, 태양 에너지

태양에너지 혁명으로 시장, 공공, 금융, 테크놀로지 혁신을 이끌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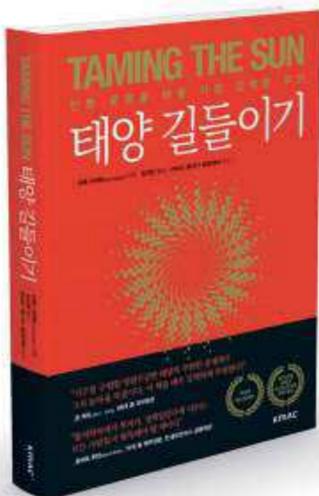
TAMING THE SUN

인류 운명을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

태양 길들이기



태양 길들이기 | 168쪽 | 14,800원 | ISBN 978-89-610-10-00-0



“지구를 구원할 영원무궁한 태양의 무한한 잠재력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 책을 매우 강력하게 추천한다!”

존 케리 John F. Kerry, 68대 미국 국무장관

“물리학자에서 투자가, 정책입안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로버트 루빈 Robert Rubin, 70대 미국 재무장관, 전 골드만삭스 공동의장

세계 최고 태양 에너지의 거장, 바론 시바람의 신작 태양광 산업의 명과 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진짜는 지금부터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햇빛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화석 연료를 대체하지 못해 결국 치명적인 기후 변화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태양 에너지 혁명으로 금융혁신, 테크놀로지 혁신, 시스템 혁신, 공공혁신, 사회적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여 년의 연구 경험과 해외 사례 등 태양에너지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파헤쳤다. 그의 ‘초 혁신’ 전략을 꼭으로 만나보자.